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유민상 청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I. 배경

이 글의 목적은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수행될 ‘청년종합실태조사(안)’의 범위 및 내용, 수행 방법의 체계적 설계를 위한 근거 자료 마련에 있음.

- ▶ 「청년기본법」은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음.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한 정책 근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청년종합실태조사(안)가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청년을 조사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이 조사대상에 일부 포함되는 정책 분야별(고용, 주거, 복지) 실태조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기존 청년대상 조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청년종합실태조사(안)의 내용이 기존 조사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기존 분야별 청년대상 실태조사의 내용 설계 및 표본설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실태조사는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2021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임¹⁾
- ▶ 이 연구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년 대상 기존 분야별 실태조사의 내용 구성 및 문항 분석
 - 법률에 근거한 2021년 청년종합실태조사(안)를 위한 ① 내용설계 및 주요 측정 문항, ② 적정 표본 설계 및 소요 예산 제안

1) 「청년기본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 기존 청년 관련 실태조사 현황

- ▶ 기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국가승인통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청년 관련 실태조사는 매년 다른 대상을 조사하는 반복횡단조사와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대상을 종단적으로 추적·관찰하는 패널조사로 구분될 수 있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되는 특성 때문에 반복횡단조사임에도 조사대상을 유지하되, 매달 일정 비율로 샘플을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통계청 승인번호: 10100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반복횡단조사로 매년 신규 샘플을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 (통계청 승인번호: 402004).
 -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과거 패널조사로 설계되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횡단면 조사로만 시행 중에 있음 (통계청 승인번호 : 327004).

[표 1] 기존 청년 관련 실태조사(패널포함)

조사명	수행기관	승인통계 여부	조사주기	비고
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통계청	○	본조사 매월 (부가조사 매년)	반복횡단
2)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매년	반복횡단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한국고용정보원	○	매년	반복횡단
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매년	패널
5) 청년패널조사(YP)	한국교육정보원	○	매년	패널
6) 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매년	패널

1)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www.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aPopup.do?confmNo=101004>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2) 청년사회 · 경제실태조사 https://www.nypi.re.kr/archive/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obLrwXvsqpk404iWSfiROx&srch_ctgry_idx=CTIDX00002&menu_nix=69k73y3j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https://survey.keis.or.kr/goms/goms01.jsp>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https://www.krivet.re.kr/ku/ha/kuCACLs.jsp>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5) 청년패널조사(YP) <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6) 교육종단연구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SurveyDBFormNewAll.do>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 ▶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음. 첫째는, 청년종합실태조사의 조사방식과 동일한 반복횡단조사로 시행 중인 세 가지 조사임. 반복횡단조사로 시행되고 있는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 등임. 둘째, 연령으로 대상을 나누어 실태를 파악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의 간략한 내용임. 셋째, 이들 조사의 지표내용과 조사방법 상의 시사점임.

1) 청년 대상 실태조사 관련 정보

(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²⁾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로 면접조사방식으로 조사 중임.

- 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임 (승인번호 101004).
- 1963년에 최초 작성된 이 조사는 본조사와 부가조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조사는 개인을 조사단위로 하여 전국 3만 5천 가구(1,737 조사구)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실시함.
- 본조사는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년층 부가조사는 2002년에 시작되어 매년 5월 최종학교 졸업시기, 취업관련 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부가조사)」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단, 청년층 부가조사는 15~34세 연령의 사람)
표집틀	2015년 인구총조사 조사구내 아파트(A), 보통(1) 및 섬(2) 조사구에서 기숙, 사회시설(3,4)을 제외한 342,182개 조사구
표본수	1,737개 조사구(조사구 당 평균 20가구), 35,000가구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조사 시기에 만 15~34세 연령인 사람이 청년층 부가조사 대상이 됨)
표집방법	층화 2단 집락 추출 7대도시(특광역시)와 세종 및 9개 도의 동부 및 읍면부 27개로 층화 - 1단(조사구추출):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가구수 크기에 비례) - 2단(가구추출): 추출된 일반조사구 1,737개 조사구에서 실업자 수의 연간 상대표준오차(RSE)를 고려하여 35,000개 가구를 단순임의추출
조사시기	5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다음 1주간
조사방법	직접 방문 면접조사 6개월이상 응답지속가구 인터넷/모바일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가능

▶ 이 조사의 목표 모집단과 표본추출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 목표 모집단: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만 15세 이상 모든 인구(단, 청년층 부가조사는 15~34세)
- 추출단위: 층화 2단 집락추출
 - 1단(조사구):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가구수 크기 비례)
 - 2단(가구): 추출된 일반조사구 내 가구 단순임의추출
(매년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3개 그룹만 추출)
- 표본추출방법:
 - 표본추출틀: 인총 조사구내 아파트(A), 보통(1) 및 섬(2) 조사구에서 기숙/사회시설(3,4)을 제외한 342,182개 조사구
 - 층화: 7대 도시(특광역시)와 세종 및 9개 도의 동부 및 읍면부 27개로 층화
 - 표본규모 결정: 실업자 수의 연간 상대표준오차(RSE)를 고려하여 전국 1,737개 조사구에서 약 35,000가구 선정

2) 나라통계(narastat.kr)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설명자료 웹페이지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http://www.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contNmNo=101004>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2)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³⁾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전국단위의 설문조사임.

- 조사목적은 “현재 청년들의 생활실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청년관련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임.
- 이 조사는 일반가구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별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7월-9월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짐.
- 조사대상 청년 연령층은 2016-2019년 만15-39세였으나,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2020년 조사부터 만18-34세로 변경됨.⁴⁾

▶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사항, 결혼 및 자녀관, 교육관련 인식, 대학생활, 일자리 관련 인식, 취업준비 및 직업훈련, 경제활동 상태, 주거 및 가구취득 관련 인식, 건강 및 스트레스, 행복과 가치관, 인간관계 및 사회참여 등
- ※ 2016 - 2019년은 중·고등학생(만15-18세) 및 청년(만19-39세)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20년부터 청년(만18-34세) 단일조사로 통합하여 진행함.

▶ 조사대상과 표본추출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및 표본규모
 - 2016 - 2019년: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청년 2,700명 내외 표본설계
 - 2020년: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약 3,500명 표본설계
- 표본추출틀 : 조사구 명부 이용
- 표본추출방식: 층화비례배분
 - 1차: 추출 조사구 각 층에서 조사구 내 가구 수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
 - 2차: 각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 추출

[표 3] 2020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일반 국민
표집틀	2018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명부 상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표본수	3,500여명
표집방법	• 층화2단추출법 • 행정구역별 층화 • 서울 및 7대 광역시와 9개 도 지역을 세부 층화하여 최종적으로 55개 지역으로 층화(단, 분석 시에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강원권, 광주전라제주권, 부산경남권 등 총 6개 단위로 통계 작성) • (55개 세부 층화 과정 : 서울(4개 지역)과 7대 광역시를 아파트와 일반조사구로 세부층화. 도지역의 경우, 11개 동부 지역과 11개 읍면부 지역으로 1차 세부층화하고, 11개 동부지역을 다시 아파트와 일반조사구로 세부층화.) • 1단계(조사구/신축아파트 단지 추출) :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 270개 조사구 추출. • 2단계(가구 추출) : 각 표본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법으로 가구 추출.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구 내에 만 18-34세 청년 가구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추출
조사시기	2017년 8월 18일 - 9월 22일 (약 5주간)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아카이브 센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안내 페이지에서 https://www.nypr.re.kr/archive/brdarti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oblLrwXvsapk404iWSiROx&srch_ctgry_idx=CTIDX00002&menu_nix=69k73y3j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4)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발간예정)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조사(GOMS)⁵⁾

-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는 학교 졸업생들의 직업이동경로를 조사하는 조사임.
 - 조사목적은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장이동경로를 조사하여 교육·노동시장 간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 조사대상 및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이 조사는 매년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졸업년도 다음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조사
 - 조사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해 3개월간 진행
- ▶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상황, 현직장 일자리, 구직활동 및 비경제활동상태, 첫 직장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취업 준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인적사항
- ▶ 표본추출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2017GOMS 기준)
 - 『2017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교육개발원, 2017)을 적용(전문대학 150개, 대학 202개, 교육대학 11개)하여 학과소분류별층화추출
 - 2016년 기준 총 206개 학과
 - 표본리스트에 대한 정확성 여부 및 조사 참여 확인을 위해 1차적으로 CATI를 실시하고, 조사 참여 의향자에 대하여 면접원이 가구(직장)를 방문한 후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2단계 조사방식으로 진행

[표 4]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기능대 등 특수목적 대학 제외)
표집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DB
표본수	18,000여명
표집방법	• 학과소분류별층화추출⁶⁾ • 층화 : 학교유형별(전문대, 4년제, 교육대) 학과단위(206개 학과단위)를 1차 층화단위로 함 • 학과단위별 '지역권역'지역)학교유형)학과)성별'로 정렬한 후 학교(혹은 학과)별 졸업생수 크기에 확률 비례하는 계통추출로 표본 추출
조사시기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 (3개월간)
조사방법	<2단계 조사방식> 1단계: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로 표본리스트 정확성 및 조사참여 확인 2단계: 대면면접조사

5) 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시스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https://survey.keis.or.kr/goms/goms01.jsp>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6)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대학 졸업자이며, 학과단위로 취업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학교유형별 학과단위(206개 학과단위)를 1차 층화단위로 하며, 전국단위의 관점에서는 5개 지역권(서울권,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성별(남성/여성)의 통계가 생산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아동·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관련 정보

- ▶ '청년'은 생애주기상의 단계로서 특정 연령범위에 해당하는 일반국민을 지칭함. 동일하게 특정 연령범위에 해당하는 대상별 조사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5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3년에 한 번씩 조사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있음. 이 두 조사는 2008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음.

(1) 아동종합실태조사

-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0-18세 미만)과 주양육자에 관한 실태조사로 국가승인통계임(승인번호 117074)
 - 아동의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 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 등 아동의 종합적 실태를 5년 주기 전국단위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

(2)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연령(9-24세)의 실태를 조사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승인번호 154013).
 -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3년 마다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표 5]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모집단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0~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만 9~24세 한국 청소년 및 주양육자
표집틀	• 일반가구 : 만0세~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 • 저소득층 가구 : 만0세~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 지원금 수급자 명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미공표에 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활용(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및 2015년 신축아파트 조사구 자료를 결합하여 보완함)
표본수	4,000가구 조사(일반가구 2500, 저소득가구 1500)	전국 5,078가구, 청소년(9~24세) 7,676명, 주양육자 5,078명
표집방법	• 각 층별 표본조사구는 지역별로 주민등록인구자료 0세부터 만18세 미만 인구수의 제곱근 비례배분 사용 • 각 층의 표본조사구 추출은 층별 아동청소년의 수를 고려하여 확률 비례 계통추출법을 사용 • 표본오차 : 모비를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에서 오차 한계는 $\pm 2.6\%p$ 수준	다단계층화집락추출 1차 : 조사구 2차 : 만9~24세 청소년이 존재하는 가구 최종 : 가구 내 만 9~24세 청소년 가구원과 그 양육자
조사시기	5년(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시기는 2018년 12월)	3년(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 2017년 6월)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가구방문 면접조사

출처: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데이터베이스. 아동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정보는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아동종합실태조사' 페이지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1707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관한 정보는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페이지 <https://meta.narastat.kr/metascv/index.do?confmNo=154013>에서 2020년 6월 14일 인출.

3) 청년 관련 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조사방법 비교 및 시사점

(1) 기존 청년 관련 조사의 조사 영역 비교 및 시사점

▶ 청년 관련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의 조사영역은 주로 경제활동과 교육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주요 실태조사와 패널조사는 교육과 고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에 관심을 갖는 정보가 주로 교육과 고용 측면이었다고 볼 수 있음.
-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가 교육과 고용 이외에 주거, 건강, 가치관 등 삶 전반으로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조사 지표가 다양하지 못한 한계

[표 6] 기존 청년 관련 실태조사의 조사영역

조사대상	조사명		조사영역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가장 최근에 다닌 학교, 직업교육 및 직장체험, 첫 일자리, 지난 주/가장 최근 일자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사회적응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경제활동상황, 현 직장 일자리, 구직활동 및 비경제활동상태, 첫 직장 일자리,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학교생활,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취업준비, 취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향후 진로
아동 청소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9)	아동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환경, 물질적 환경, 주관적 웰빙
		주양육자	건강, 발달 및 교육, 관계, 양육 및 돌봄, 여가 및 활동, 안전 및 위험행동, 지역사회환경, 물질적 환경, 가구 특성 (※ 단, 영유아에 관한 사항은 주양육자 대리 응답)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청소년	건강, 사회문화, 가정생활 및 가족관,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진로·직업 및 직업관, 사회관
		주양육자	양육경험, 생활환경, 가구 특성

▶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삶의 질(well-being) 프레임워크를 통해 측정되고 있으므로 청년 삶의 질에 관한 측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류정희 외, 2019; 김기현 외, 발간예정)

- 청년기의 삶의 질을 포괄할 수 있는 실태조사로의 확대 필요
- 삶의 질의 다양한 측면, 즉, 건강, 교육, 건강, 안전, 물질적 상황, 주관적 웰빙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기타 주제에 대한 조사는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고려 필요

- 청년 관련 패널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훈련, 진로, 직업 등과 관련한 항목이나 특징, 인식, 경험 등에 관한 조사는 부가조사 형태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추가로 파악 가능

[표 7] 기존 청년 관련 패널조사의 조사영역

조사대상	조사명	조사영역	
청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학교생활, 진학계획, 구직활동, 일자리 지속여부, 현재 취업여부, 현 일자리 특성, 취업의사 및 취업준비, 직장 경력, 가정생활, 여가생활, 교육훈련, 진로계획, 경제의식, 취업선호도, 사회적 자본, 자기관리 역량검사	
	청년패널조사(YP)	학교생활, 경제활동상태, 경험일자리, 시험준비/직업훈련/자격증/직장체험훈련, 사교육/취업사교육/해외연수, 진로지도/예상진로/진로발달/구직동기, 기타(건강과 스트레스 등)	
	교육종단연구	대상별 문항	학령기 특성, 아르바이트, 대학진학, 대학생활, 학습경험, 학습성과, 대학생활/만족도/소속감, 대학풍토, 인적교류, 교육경비, 향후계획, 졸업계획 및 취업, 일자리 경험, 구직경험, 교육비 지출, 교육경험 및 진학계획, 대학원생 및 대학원 특성
		공통문항	군입대 및 제대, 시간활용 및 정치참여, 자기주도학습, 인적교류, 해외경험, 자신에 대한 인식, 가치관 및 사회인식, 가정생활 및 결혼, 건강 및 정서적 안정, 생애목표의식 검사 및 도덕성

(2) 기존 청년 관련 조사의 조사 방법 비교 및 시사점

▶ 청년 관련 실태조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조사는 가구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경우 가구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는 조사의 특성상 학교 및 학과 기반의 표본추출이 필요하므로 학과소분류별층화추출을 통해 표본추출 후 대면면접조사로 시행하고 있음.
- 아동, 청소년 등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인구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른 일반 조사구를 통해 가구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두 조사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조사 및 주양육자에 대한 조사를 함께 시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조사에서 원가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 필요
- 일반 조사구를 통한 가구조사의 경우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기숙사, 원룸, 고시원 등이 누락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 방식을 통해 누락되는 청년들이 취약청년 등 주요한 정책집단이 될 수 있으므로 특정한 고려 필요함.
- 기존 연령대상 실태조사는 연령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수가 적어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샘플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한계가 있음.

[표 8] 기존 청년 관련 실태조사의 조사방법 정보

조사대상	조사명	모집단	표본수	표본추출방식	비고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모든 인구	-	층화 2단 집락추출	가구조사
	청년 사회 · 경제실태조사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3,500명	확률비례계통추출	가구조사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전년도 2~3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18,038명	학과소분류별층화추출	-
아동 · 청소년	아동종합실태조사(2019)	만0세~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4,039명	확률비례계통추출 *저소득 가구는 층화2단집락추출법에 따라 추출	가구조사 (일반가구조사, 저소득가구조사 별도로 진행)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7)	9~24세 청소년과 주양육자	5,078가구 (청소년 7,676명, 주양육자 5,078명)	확률비례계통추출	가구조사

III. 표본설계 및 조사예산(안)

▶ 청년기의 핵심은 다른 상태로 나아간다는 이행(transition) 혹은 전환에 있음. 가정에서 양육을 받던 아동이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점진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19-34세의 청년이라는 연령집단 내에는 진학, 취업, 결혼, 출산, 이혼 등 생애과정 내의 다양한 경로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됨.
- 원가정에서의 공간적 자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 등은 0과 1사이의 분절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안의 연속선상의 한 점일 수 있음.
- 연령을 기반으로 한 청년 정의는 이행기에 있는 다양한 경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모두 포괄함. 다양한 대상들을 포괄하기 위한 조사 설계 필요

▶ 일반청년과 특수한 욕구를 가진 취약청년들을 함께 조사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실태조사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이 조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하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및 표집에 어려움 발생이 예상됨
- 청년기본법 제8조3항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년종합실태조사(안)에는 고용분야 취약계층, 교육분야 취약계층, 복지분야 취약계층이

별도로 표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빈곤층의 경우 빈곤 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벤치마킹 가능한 모집단 자료가 부재함.
- 청년조사만으로는 소득파악이 어려우므로 빈곤 청년을 구분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청년의 거처를 특정해야 하는 점, 청년에 대한 면접 등도 난점
 - 1인 가구의 청년 샘플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거처의 종류(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등)가 표본설계 및 조사구 추출에 반영되어야 함.
 - 조사의 대상은 조사 가능 시간대 재택률이 매우 낮고, 1인 가구의 특성상 동거인을 통한 조사 설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 내 1인가구 발현율이 실제보다 매우 낮게 잡힐 가능성이 높음.

▶ 조사전문업체 실무자들은 청년종합실태조사는 기존 조사에 비해 매우 까다로운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청년종합실태조사(안)의 설계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20년 4월에 3개 전문조사업체 실무자에게 서면자문을 실시하였음.
 - ※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 시기에 연구가 진행되어 대면자문은 시행하지 않음.
- 서면자문 내용은 취약계층 조사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과 별도 부가조사 설계안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예상 조사인원과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받는 것임.
- 전문조사업체 실무자들은 청년층 조사 시 조사구 조사의 한계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음. 기존 실태조사 방식으로 조사할 경우 청년 취약계층을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였음.

▶ 1인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고려 필요.

- 두 가지 방법 고려 가능. 첫째, 일반가구조사와 동일하게 전국 대표성 있는 샘플에 추가 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빈곤가구 추가모집 후 적용한 방식), 둘째, 일반가구조사 이외에 추가로 조사샘플을 추가하는 방법. 단, 추가 샘플은 비확률 표집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므로 대표성 있는 샘플을 얻기 어려움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매체 실태조사」의 위기청소년 조사 안).
- 조사전문업체 실무자들은 조사 방법에 대해 일반조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1안)과 임의표집을 통한 부가조사 설계 방안(2안)이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부가조사 설계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는데, 부가조사 설계 이유는 일반조사에서 대상 연령대의 대표성 확보 및 시도별 분석 가능 표본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과 1인 가구 및 빈곤층 등의 특수계층 조사를 포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17개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000케이스 이상 필요하며 부가조사 등을 고려하면 1만 케이스 이상 필요

- 샘플 수는 17개 시도 비교 가능한 샘플을 구성할 경우 최소 7,000 케이스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집단을 고려하면 1만 케이스 이상 조사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9] 부가조사 표본설계 및 예산에 관한 조사전문업체 실무자 의견 요약

	1안(가중치 조정안)	2안(부가조사 설계안)	
주요대상	전국의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부가조사는 경제 취약, 지위 취약 청년을 빈곤을 기준으로 하고, 고용, 교육, 훈련 지위에 있지 않은 대상으로 정의)		
조사방식	기존 지역구 조사 방식에서 취약계층의 밀집지역을 추가하는 방식 (1안. 일반조사는 확률표집으로 진행, 부가조사는 별도 지역 추가 샘플링하여 진행) (2안. 일반조사는 확률표집으로 진행, 부가조사는 지자체 협조를 얻어 취약계층의 명단을 얻어 별도 조사하는 방식)		
조사인원	총 10,000 케이스 이상 조사	총 7,000 케이스 이상 조사	총 7,000 케이스 이상 조사
최소예산	약 5억원	약 3억 5천만원	약 3억 5천만원
비고	가구방문조사를 통해서 청년을 만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모바일 조사 필요	가구 방문조사 부가조사를 1인가구, 빈곤가구 등 조사결과와 활용과 목표에 따라 설계하고, 부가조사로 계획할 필요가 있음	가구 방문 조사 17개 시도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는 일반조사의 표본수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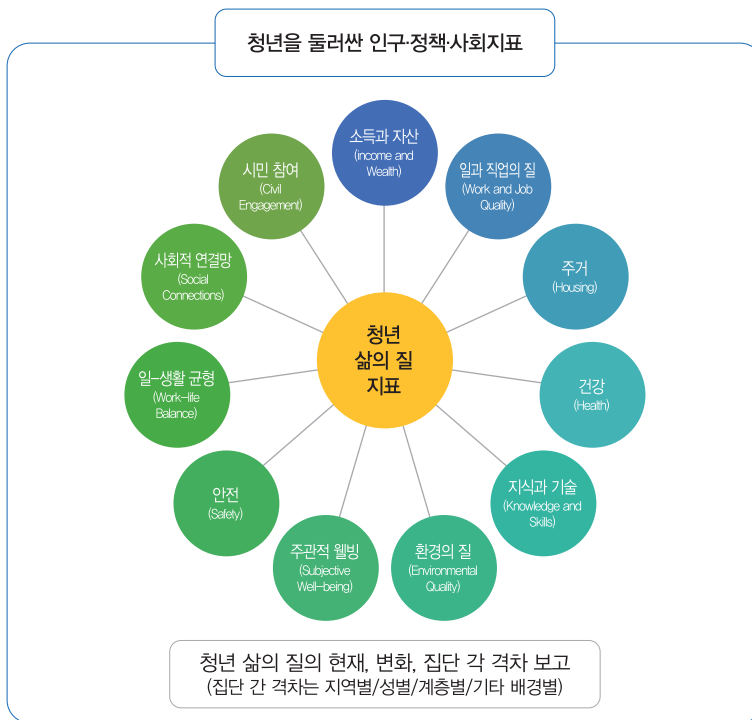
IV.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제언

- ▶ 지금까지 청년종합실태조사(안)의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에 대하여 조사 프레임워크 및 지표, 조사 표본설계 관련하여 살펴보았음.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조사 프레임워크 및 지표 설계 방향

1) 조사 프레임워크: 청년의 삶의 질(well-being)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과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청년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조사 설계가 바람직함.
 -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청년기본법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년 개인의 삶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질에 초점을 맞출 필요.



[그림1] 청년 삶의 질 지수(Youth Life Index) 지표체계(안)

*출처: 저자 작성. 단, 지표의 주요 영역은 OECD(2020), How's life? 의 주요 영역을 차용하여 구성하였음.

- ▶ 청년 삶의 질에 대한 측정은 청년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정부 정책목표와 OECD 등의 국제기구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며, 추후 청년지수(Youth Index)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정부의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의 질과 행복의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으며, 청년 개인과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김기현 외, 2020;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 2020)
 - OECD 등 국제통계의 프레임도 삶의 질(well-being)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이후 경제성장과 관련한 지표들로 삶을 파악하는 것은 부족하며,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 (Jean-Paul, F., & Martine, D., 2018).
 - 이 조사는 첫 번째 조사로서 이후 조사의 기초선(baseline)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아직 국내에서 청년 삶의 질에 관한 프레임워크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 설계 시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및 고려가 필요함.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에서도 청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청년 지표(Youth Life Index)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어, 청년종합실태조사가 청년 삶의 질 중심으로 지표 프레임워크가 설계되고 핵심 지표들이 측정된다면 청년 지표가 체계적으로 개발되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조사 지표 구성 방향

- ▶ 지금까지의 청년 관련 실태조사들은 경제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반적인 삶의 질 파악에는 미흡한 상황임.
 - 청년 관련 지표는 정책영역(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생활안정, 건강 등) 중심의 구분, 혹은 삶의 질 영역 중심의 구분(건강, 안전, 관계, 물질적 상황, 행복 등)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정책영역 중심의 프레임워크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지표들을 총괄할 수 있으므로 정부 백서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공급자 중심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병렬적인 정책지표의 나열 수준에서 지표가 구성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삶의 질 중심의 프레임워크는 이론적으로 구축된 프레임에 의해 청년 삶의 다양한 영역을 파악하기에는 용이하나, 개인을 중심으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구성하므로 정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청년종합실태조사(안)의 조사범위 및 내용은 고용과 교육을 넘어서 청년들의 삶의 전반을 다루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함
 -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 안에서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과 행복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청년 삶의 질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적용이 필요(예.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 청년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삶의 질 프레임워크 역시 생애발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유민상 외, 2019).
- ▶ 청년종합실태조사는 지표 설계 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 필요
 - 영역별로는 경제, 교육, 훈련 영역 이외에 건강·사회적 관계·참여기회·인식·삶의 만족 등 부족하게 생산되고 있는 영역에 대해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는 기존의 조사들이 부처의 정책육구에 의해 파악하였던 것을 청년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의미.
 - 지표 특성별로는 객관적, 부정적 통계 이외에 긍정적, 주관적 지표가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 구성 필요.
- ▶ 중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체계,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와 같이 청년 삶의 질 지표체계(set of indicators for youth well-being)를 구축하고, 청년종합실태조사(안)를 통해 주요 지표를 생산하는 방안 고려 필요.

2. 조사 표본설계 방향

- ▶ **청년종합실태조사(안)는 다양한 청년 계층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19세부터 34세까지 이행기 청년에 대한 다양한 특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1인 가구, 빈곤청년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함
 - 전국 대표성 있는 표본설계를 통해 17개 시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 ▶ **일반조사와 부가조사 설계방식, 대면조사와 온라인 조사 설계방식 등 다양한 고려 필요**
 - 일반 조사를 기반으로 한 조사방식은 1인 가구와 청년 밀집 지역 혹은 주거형태에 대한 조사에 취약할 수 있음. 따라서 일반조사 이외의 부가조사를 설계하여 특수한 욕구를 가진 집단 혹은 취약집단에 대한 조사 방안 마련 필요
 - 가구방문 조사의 경우 조사 가능 시간대 재택률이 매우 낮고, 1인 가구의 경우 동거인을 통한 조사 설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부가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조사와 병행하는 방법 고려 필요.
- ▶ **생애주기별 조사의 통합 검토 필요**
 -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관한 조사는 모두 연령에 기반한 일반조사임. 조사 연령대의 중복을 피하고 조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조사를 통합하여 '생애전반기 통합실태조사'의 형태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유민상 외, 2019).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25).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차세영, 강정석, 이화진, 권형원,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2020). 청년정책 현황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이용해(발간예정).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2020). 청년의 삶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세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류정희, 이상정, 전진아, 박세경, 여유진, 이주연, 김지민, 송현중, 유민상, 이봉주(2019). 아동 종합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 유민상, 이희희, 유성렬, 도남희, 류정희, 김혜자, 구자연, 최창용, 정지은, 이용해, 배진우(2019).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Jean-Paul, F., & Martine, D. (2018). Beyond GDP Measuring What Counts fo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Measuring What Counts fo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ECD Publishing.
- OECD(2020). How's Life? OECD Publishing.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데이터베이스<https://meta.narastat.kr>에서 2020년 6월 14일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https://survey.keis.or.kr/goms/goms01.jsp>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종단연구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SurveyDBFormNewAll.do>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 한국교육정보원 청년패널조사(YP) <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https://www.krivet.re.kr/ku/ha/kuCACLs.jsp>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https://www.nypi.re.kr/archive/brdarti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obLrwXvsapk404iWSliROx&srch_ctgry_idx=CTIDX00002&menu_nix=69k73y3j 에서 2020년 4월 17일 인출.